

보물 제337호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의 복장물인 '백운화상 발원문'. 일반에 최초 공개됐다.

불교 타임캡슐 '불복장' 모든 것을 만나다

조계종 불교중앙博, 5월 31일까지 테마展

2월 6일 전시 개막식 개최
장곡사 약사여래상 복장물인
10m 발원문 일반 최초 공개
시대별 복장물 79점 전시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만월세계(滿月世界)에는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매우 존귀하고 매우 신성하며 큰 원(願)과 큰 능력, 큰 자비와 큰 희사를 갖추신 부처님이 나타나신다. 이 동방만월세계의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에서 가장 높고 신성하신 대약사유리광 부처님께 귀의한다."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발원문 中

'불복장(佛腹藏)'은 불상과 불화에 발원문·후령통·다라니·경전·직물 등을 봉안하는 의식이다. 이는 불상과 불화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며, 역사적으로는 당시 불상·불화 조성 상황과 풍습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불복장'을 '불교 타임캡슐'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복장의 형성과 시대별 변천 과정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신년을 맞아 마련됐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오심)은 2월 6일 신년 테마전 '붓다의 탄생- 불복장'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보물 5건, 지방유형문화재 4건을 포함해 총58건 79점의 다양한 복장유물이 전시된다.

눈길을 끄는 복장유물은 일반에 최초 공개되는 보물 제337호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의 복장물들이다. 장곡사 복장유물의 특징은 풍부한 명문을 통해 불상과 관련한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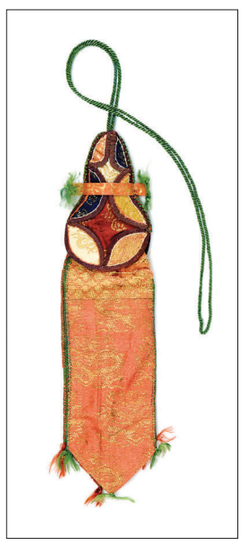
특히 붉은 비단에 백운(白雲)이라는 스님이 쓴 10m 길이의 발원문(1,058×47.8cm)은 단연코 전시회의 백미(白眉)다. 불상의 조성경위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더불어 1007명의 시주자 명단은 압도적인 스케일을 보인다.

또한 발원문 저자인 백운 스님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의 저자인 백운경한(1298~1374)으로 추정돼 그 의미를 더한다.

전시는 △복장의 의미:불복장이란 △불복장의 시작: 고려시대 △복장의 발전: 조선시대 △불화의 복장 등 4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무불상시대를 거쳐 불상이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며, 형성된 불복장의식 전반에 대해 다룬다. 2부에서는 고려 중기 이후 본격적으로 성립된 불복장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며, 3부는 조선시대에 불복장의식이 완전히 안착돼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조선시대의 불복장은 신앙의 대상인 동시에 불상조성 당시와 중수 시기 사찰 내에서 불사를 이끌었던 소임자와 제작 화사(畵師)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4부에서는 불화의 공간적 한계로 복장의 핵심인 후령통으로 집중해 조성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오심 스님은 "불상은 복장의식을 통해 생명력을 갖는다. 복장물 자체로 신앙 대상이며, 경전을 포함한 여러 유물은 불상 조성 경위와 시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이번 전시는 복장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을 살펴봄으로서 복장의 가치를 되새겨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곡사. 복장낭



용문사 극락암 영산회상도

난세에도 흔들림 없던 선지식, 묵담 대종사

다큐멘터리 '묵담 대종사, 그의 선·교·율'
BTN불교TV 설 특집, 2월 15일 오후 3시 방영



묵담 대종사(1896~1981)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선지식, 묵담(1896~1981) 대종사의 생애를 만난다. BTN불교TV는 설 특집 프로그램으로 묵담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묵담 대종사, 그의 선·교·율'을 2월 15일(목) 오후 3시에 방영한다.

묵담 스님은 한국불교 근현대사에서 선·교·율을 겸비한 대종사였으며, 조계종 5·6·7세 종정과 태고종 3·4세 종정을 지냈다. 또한 해동율맥의 9대 율사이자 전계대화상으로 모든 불사에 작법증명하는 증명법사로 널리 알려졌다. 동진출가해 선과 율의 공부에 일생 진력했으며, 불사의 례문에 있어서는 독보적이다. 즉 이사(理事)와 내외가 겸전한 당대의 선지식이다. 선교양종을 겸수하고 부처님의 청정계맥을 계승해 많은 계단서 대소승계를 전수했으며, 모든 불사에 참증하고 많은 재식과 기도의식을 여법히 지도하는 데 엄정했다.

격변의 시기에 태어난 묵담 스님은 열한 살 되던 해인 1906년 4월에 백양사에 입산하여 출가했다. 스님의 동진 출가 이유는 대부분의 동진출가와 달랐다. 묵담 스님은 열한 살 때 조모를 따라간 백양사에서 부처님의 세상을 보게 된다.

"도보로 백양사 입구에 당도하니 무성한 수엽은 일산처럼 하늘을 덮어 가리워지고 보지도 듣지도 못한 온갖 새들은 내가 찾아온 것을 위안이라도 해 주는 것처럼 가지각색으로 노래하며 맞아 주는지라 3세에 부친을 잃고 8세에 모친마저 이별한 나로서는 일념심부절로 부모 생각뿐이었으나 이때는 부모 생각은커녕 이렇듯 자비로운 세상도 있구나 하는 즐거움뿐었습니다."

- <묵담대종사문집> 중 -

스님은 1907년 백양사 청류암에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14년 내장사 금강계단에서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여 비구가 된다. 강원 수학 중이던 스님은 1918년 백양사 법계고시에서 대선법계를 받고 1920년 강원 이력을 성만한다. 그리고 1924년에 내장사 금강계단에서 금해 율사의 전계로 구족계를 받아 해동의 율맥을 잇는다. 금해 율사로부터 율맥을 전수받은 묵담 스님은 1930년에 대덕법계, 1931년에 종사법계를 받고 1932년에 대종사의 법계를 받는다. 그리고 여래의 안심입명처를 깨달아 오도송을 남긴다. 1981년 1월 13일 묵담 스님은 문도들에게 "부처님의 계를 스승 삼아 공부하되 스스로 등불을 밝혀 세상을 빛내라"고 당부하고 열반에 든다. 출가의 동기부터가 남달랐던 스님의 행장은 열반에 들 때까지 어느 한 시절도 비어있지 않았다.

2016년 가을의 담양 용화사 묵담유물관에서 시작되는 '묵담 대종사, 그의 선·교·율'은 BTN 제작진이 1년 6개월에 걸쳐 수집한 스님의 유물과 생전 인연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정혜 삼학에다가 삼장을 다 섭렵하시고, 부처님의 근본사상을 말하자면 확실하게 실천하신 분이 묵담 스님입니다."

암도, 도문, 수진 스님 등 30여 명의 인연들이 묵담 스님의 생애를 들려준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대종사, 묵담 스님의 사상과 삶을 통해 바른 불교정신과 오늘을 사는 사부대중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완 기자

불일미술관 소장품 전시

'빛으로 바람으로' 展
2월 3일~2월 20일

봄기운을 기다리는 겨울의 끝에서 스님들의 수행의 기운과 젊은 작가들의 생동하는 에너지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서울 법련사(주지·진경) 불일미술관은 2018년 신년을 맞이해 불일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전시한다. 선서화와 불상 등 오랜 기간 불일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귀한 작품 40여 점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는 석정 스님의 '포대화상(92.5x51.4cm 수묵)'과 범주 스님의 '달마도(85x50cm 수묵)'를 비롯해 노재학, 윤지웅 등 2016년과 2017년 불일미술관이 신진작가 공모전을 통해 전시했던 작가들의 작품들을 가려 다시 전시한다. 아울러 정월, 전도예 등 새롭게 선보이는 작가의 작품도 전시된다.

학예실장 여서 스님은 "제목 '빛으로 바람으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전시는 무명의 중생들에게 영원한 '빛'인 부처님의 가피가 신년을 맞은 대중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된 것이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